

중세국어의 ‘ㄱ’ 덧남 유형에 대하여

권병로·박종희(군산대)¹⁾

차 례

1. 머리말
2. 체언 어간의 ‘ㄱ’ 덧남
3. 용언 어간의 ‘ㄱ’ 덧남
4. 맺음말

1. 머리말

정음문헌에(15세기) ‘木’을 의미하는 체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나타난다. 단독형: 나모 아래(월석 2:32), 공동격: 나모와(용가 89장), 배제격: 남근(용가 2장), 주격: 남기(석상 6:24) 등. 곡용에 있어서는 공동격에 있어서만 ‘나모’를 볼 수 있을 뿐, 다른 모든 격에 있어서는 ‘남ㄱ’ 어간형을 보인다. 이형태 ‘남ㄱ’는 공동격 이외의 다른 격접미사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 접미사들은 모두 모음으로 시작되어 있다. 한편, ‘나모’는 단독형일 때 및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앞에서 나타난다. 그 당시 표기법에서 주격형 ‘*나·피’의 존재가 불가능하여 그것이 ‘남·기’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특이한 비자동적 교체 현상으로 주목되어 왔다(이기문 1962). 용언 어간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나모~남ㄱ’의 교체 현상에 대해, 이때의 ‘ㄱ’를 어간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군산대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일부로 처리하고 ‘남ㄱ>나ㅁ>나모>나무’의 발달을 상정하였으며,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모~남기, 구무~굼글’에서 ‘ㄱ’가 나타나는 것을 ㄱ곡용이라 하여 ‘ㄱ’가 새로이 첨가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ㄱ’가 곡용 시에 첨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은, 여러 자음 음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 ‘ㄱ’가 첨가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 데에 있었다. 또 다른 견해는 ‘나모’의 재구형(또는 가상적 기본형태)을 ‘*nāmāy’ 또는 고대 단일어간형 ‘*namak’으로 재구하고 15세기의 ‘나모’는 고대에는 ‘*namak’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휴지나 자음 앞에서는 말자음이 탈락하여 ‘*나ㅁ>나모’가 되고, 모음 앞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남ㄱ’가 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 견해가 지닌 문제점은, ‘*나ㅁ’이 어떤 이유로 휴지나 자음 앞에서는 말자음이 탈락하고, 또 모음 앞에서는 2음절 모음이 탈락하여 ‘남ㄱ’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다. ‘*나ㅁ’이나 ‘*나ㅁ’에 모음이 연결되면 즉 CVCVC(나ㅁ/나ㅁ)+V가 되면 이것은 15세기 국어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음소 연결 방식인데 어째서 이 경우에 제2음절의 모음(‘으/오’)이 탈락하는지, 또 자음이 연결될 경우 즉 CVCVC+C의 경우 왜 제2음절의 끝 자음이 탈락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김영일 1998).

이 글에서는 ‘남기’(木) ‘굼글’(孔) 등에 나타나는 ‘ㄱ’를 잠재음(자질)로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잠재음(latent segment)은 문법이 결정하는 위치에서, 완전분절음(full segment)으로 실현되는(구체화되는) 부동자질들(floating features)을 말한다(Zoll 1994/2001). 잠재음(자질)은 기저상에서 뿌리마디가 없는 부동자질로 존재하므로, ‘나모’(木)의 기저형은 /나ㅁ, [Dorsal]/로 표시할 수 있다. 완전분절음은 뿌리마디(root node)를 갖고 잠재음(자질)은 뿌리마디를 갖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또한 등급이 다른 제약들(SSC, *Struc(σ), NoCoda, Max(잠재음), Align)로 구성된 문법을 설정함으로써, 잠재음(자질) [Dorsal]의 특이한 행동이 중세국어 표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체언 어간의 ‘ㄱ’ 덧남

15세기 중엽의 정음문헌에 ‘木’을 의미하는 체언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나타난다(이기문 1962: 311).

- (1) 단독형, 나모 아래(월석 2:32)
 - 공동격, 나모와(용가 89장)
 - 배제격, 남곤(용가 2장)
 - 주격, 남기(석상 6:24)
 - 처격, 남기(용가 84장), 남기(몽법 11)
 - 대격, 남굴(용가 86장)
 - 지정, 남기오(두언 21:43) 등

곡용에 있어서는 공동격에 있어서만 ‘나모’를 볼 수 있을 뿐²⁾ 다른 모든 격에 있어서는 ‘남기’와 같은 어간형을 본다. 순수히 공식적인 관점에서 위 예들은 교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즉 이 어간 형태소들은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기술하고, 그 교체의 성격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형태 ‘남기’는 공동격 이외의 다른 격접미사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 접미사들은 모두 모음으로 시작되어 있다. 한편 ‘나모’는 자음 접미사 앞에서와 단독형으로 사용되었을 때 나타난다. 국어에서 휴지는 자음과 음운론적으로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이들의 환경은 음운론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이 교체는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 이와 동일한 교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는 체언 어간들은 많이 나타난다.

- (2) 단독형, 구무 바회 孔巖(용가 3:13), 구무 우회(두언 9:16), 구무마다(석상 11:1)
 - 주격, 굽기(월석 2:56)
 - 처격, 굽기(석상 13:10)

2) 공동격의 경우에 대해서는 박종희(2003) 참고.

대격, 굶글(월석서 21) 등

단독형, 녀느 아니라(능엄 4:23), 녀느 龍(월석 1:24)

주격, 년기(용가 48장)

대격, 년글(용가 20장) 등

단독형, 불무 治(자회 하 16)

처격, 불괴(원각 상 2:3: 23)

대격, 불글(개간 두언 2:47)

지정, 불기라(삼가해 2:28) 등

이들은 /나모/~/~남기/와 같이 각각 /구무/~/~굶기/, /녀느/~/~년기/ /불무/~/~불기/의 두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조건도 동일하다. 이 교체형에 보이는 ‘기’는 잠재음(latent segment)이 표면에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잠재음(자질)은 문법이 결정하는 위치에서, 완전분절음(full segment)으로 실현되는 부동자질(floating features)을 가리킨다. 모든 잠재음들은 기저상에서 부동자질로서 존재하므로 완전분절음의 기저형과는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Zoll 1994/2001).

(3) 완전분절음	잠재음과 부동자질들	잠재음 ‘기’
-----------	---------------	---------

뿌리마디

(Root)

|

자질들

자질들

[Dorsal]

완전분절음(full segment)은 뿌리마디(root node)를 갖고 잠재음(자질)은 위의 (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뿌리마디를 갖지 않는다고 기저형을 구분하면, 등급이 다른 제약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잠재음들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잠재음(자질)은 지정된 하나의 고정 위치에서(고정성)

항상 자신의 분절음으로(분절음성)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부동자질은 잠재음(자질)과 달리 계류지를 찾아 주위로 이동하다가(이동성) 기존의 분절음에 부착하는(비자립성) 것으로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Zoll(1994/2001)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잠재음(자질)과 부동자질의 기저표상을 위의 그림과 같이 단일한 것으로 보면 전통적인 잠재음(자질)과 부동자질의 차이점은 아래에 제시된 제약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된다. 특히 Align제약(어간의 오른쪽 끝에 잠재음을 정렬시킨다.)은 뿌리마디의 속성인 위치 보존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다.

세계 언어들의 음소배열론에서, 음절 종성보다 음절 초성이 갖는 우월성이 자주 주목되었다(Jakobson 1962). 이 우월성은 음절 초성의 어떤 소리 자체가 지닌 고유의 인지적 단서(cues)가 음절 종성의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과 관계가 있다. 음절 종성의 파열음은 수의적으로 음향적 개방이 이루어지는 반면, 음절 초성의 파열음은 필수적으로 개방된다. 이러한 필수적인 개방 때문에 음절 초성의 파열음은 음절 종성의 파열음보다 조음위치, 조음방법, 유성·무성의 대립에 관해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인지적 단서를 가진다. 즉, 음절 초성 위치에서의 포먼트 전이(formant transitions)는 음절 종성 위치에서의 포먼트 전이보다 더 강력한 인지적 단서를 제공한다(Wright 2001). 이러한 사실은 NoCoda제약의 일반성과 인지적 역할을 이해하는데 주요 열쇠가 된다.

(4) NoCoda: 개음절이어야 한다(Prince & Smolensky 1993).

부동자질에 의한 모든 설명은 자질의 가능한 결합을 지배하는 분절음 구조(segment structure)제약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제약은 상위 등급의 제약으로서, 이 제약에 의해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가능한 자질결합들이 제거된다.

(5) 분절음 구조 제약(SSC): 부적절한 자절결합은 회피한다.

우리말에서 분절음 구조 제약(SSC)은 기저상의 분절음 목록으로부터 직접 알아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은 연구개음이 2차적으로 조음되는 분절음을 갖지 않으므로, 위 제약에 의해 그러한 분절음들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그리고 이 제약은 Max(잠재음)를 지배하므로, 잘못된 분절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막기 위하여 부동자질을 운율구조에 배정하지 않고 탈락시킨다.

(6)Max(잠재음): 잠재음을 생략하지 않는다(McCarthy 1995).

등급: 분절음구조제약(SSC)》Max(잠재음)

이유: 잘못된 분절음을 출현시키기보다는 잠재음을 생략한다.

가능한 목표음을 결정한 다음에는 잠재음(자질)이 그 목표음을 향해 이동해 갈 수 있느냐 또는 이동해 갈 수 없느냐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잠재음(자질)의 이동 여부는 Max(잠재음)와 Align제약의 상대적인 등급에 의해 결정된다. Max(잠재음)이 Align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목표음을 찾기 위하여 잠재음(자질)이 가장자리로부터 이동해 갈 수 있다. 반대로 Align가 Max(잠재음)를 지배하면, 가장자리에 지시된 목표음에 국한되어 나타나게 된다.

후보형 ‘남이’(/nam.i/, 木)와 ‘남기’(/nam.ki/, 木)가 경쟁하는 경우, 잠재음 ([Dorsal] 또는 ㉠)은 Align에 의해 중성 위치에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데, 전자는 잠재음을 탈락시켰기 때문에 Align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뒤 음절의 초성 위치에 잠재음이 ‘ㄱ’으로 나타나 Align을 위배하게 되지만, 상위의 Max(잠재음)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따라서 Max(잠재음)》Align과 같은 제약 등급을 갖는다.

단독형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사가 와서, 후보형 ‘나목’(<‘나목’(/na.mʌk/)과 ‘나모’(<‘나ㅁ’(/na.mʌ/)가 경쟁하는 경우, 두 후보형은 모두 Align을 위배하지 않는다. 전자는 Max(잠재음)을 위배하지 않고, 후자는

위배하므로 전자가 최적형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절구조 제약인 NoCoda가 더 높은 등급에 위치하므로 종성이 없는 ‘나모’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따라서 NoCoda≫Max(잠재음)≫Align과 같은 제약 순위를 갖는다.

(7) *Struc(σ): 한 단어 내의 음절수를 최소화한다(Zoll 1994).

즉, 불필요한 음절을 추가하지 않는다.

등급: *Struc(σ)≫Max(잠재음)≫Align

이유: 모음 삽입이 일어나지 않고 그 대신 잠재음(자질)이 탈락한다.

제약(7)은 Selkirk(1981)의 ‘음절최소화 원리’(syllable minimization principle)를 Zoll(1993)이 OT에 적용한 것으로서, 한 단어 내의 음절 총수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갖는다.³⁾ 그리하여 잠재음(자질)이 표면에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제약은 잠재모음과 잠재자음의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준다. 다시 말해서 여분의 자음들은 기존 음절의 초성이나 종성이 될 수 있지만 음절수를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자음의 표면상의 독자적인 실현은 잠재모음과 달리 이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 이 제약이 Max(잠재음)를 지배하면, 잠재음은 독자적인 모음으로서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고 탈락해야만 한다.

*Struc(σ)제약의 타당성은 뒤에 연결하는 접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간의 꼴이 달라지는 어형 ‘이시-~잇-(有)’에서도 입증된다(잇거뇨<석보 6:13>, 이셔셔<두해-초 16:26> 등). 잠재음(자질) [high]를 갖고 있는 /잇, [high]/을 기저형으로 보고, 제약의 위계를 (7)에 제시된 것처럼 *Struc(σ)≫Max(잠재음)≫Align로 설정하면, 후보형 ‘이시거뇨’는 *Struc(σ)를 네 번 위배하므로 제외된다. 그러나 후보형 ‘잇거뇨’는 Max(잠재음)을 위배하지만 상위 제약 *Struc(σ)를 세 번만 위배하므로 최적형으로 선택되어 표기상에 나타난다. 모음 접사가 뒤에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후보형 ‘이시어셔’는 *Struc(σ)를 네 번 위배하므로 제일 먼

3) 이 제약은 No root node 제약과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지 제외된다. 후보형 ‘이셔셔’와 ‘이서셔’가 경쟁하게 되는데, 이때 ‘이서셔’는 Max(잠재음)을 위배하게 되어 제외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셔셔’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여기에서 *Struc(σ)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목도’(8.ㄷ)에 있어서, /ㄱ/는 본래의 음절수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Struc(σ)을 더 이상 위배하지 않는다. *Struc(σ)는 한 단어 안 음절의 총수에만 관여할 뿐 음절 내부의 복합 구조에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존의 음절구조에 끼어드는 자음에 의해서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 제약은 잠재자음이 기존 음절의 일부분으로 출현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독자적으로 필요치 않을 경우 모음의 삽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음이 삽입된 ‘나모그도’(8.ㄱ)와 ‘낙모도’(8.ㄴ) 및 ‘나목도’(8.ㄷ)같은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출현하지 않고 ‘나모도’(8.ㄷ)가 최적형이 되므로, *Struc(σ)은 Max(잠재음)와 Align을 지배해야 한다. 이 Align 제약은 어근의 오른쪽 끝과 조사의 왼쪽 끝을 정렬시키고자 한다. NoCoda는 음절구조 제약으로서 음절은 개음절일 것을 요구한다. NoCoda가 Align을 지배하지 않으면 틀린 어형 ‘나목도’가 선택된다. 그리고 NoCoda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잠재음(자질)을 생략해야 하므로 NoCoda는 Max(잠재음)를 지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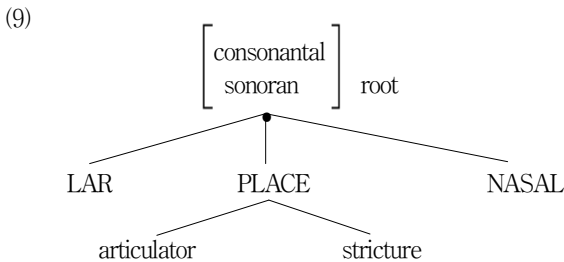
(8)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에 오는 경우

/나ㅁ, [Dorsal]+도/	SSC	*Struc(σ)	No Coda	Max (잠재음)	Align
ㄱ. 나모그도		****!			*
ㄴ. 낙모도		***	*!		**
ㄷ. 나목도		***	*!		
ㄷ. 나모도		***		*	

잠재음(자질)이 부동의 위치자질 [Dorsal]로 표시되는 이러한 설명에서, 그 위치자질에 대응하는 2차 조음이 우리말의 음운목록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분절음구조(segment structure)제약의 역할은 자명해진다. 이때 분절음구조 제약(SSC)은 삽입된 뿌리마디를 기반으로 하여 1차 조음 /ㄱ/로 실현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잠재음(자질)이 표면에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Align은 잠재음(자질)을 어간말에 위치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Align은 뿌리마디가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 어간말 위치에 /ㄱ/가 삽입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잠재음(자질)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저상에 뿌리마디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뿌리마디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자질도형(geometry of features)에서 뿌리마디(root node)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Clement 1985, Padgett 1991).



전통적으로 뿌리마디의 부재는 이동성(mobility)을, 그리고 뿌리마디의 존재는 자립성(autarchy)을 지시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뿌리마디의 계류적 기능은 Align제약이 이어 받고 있으며, 자립성은 분절음구조 제약(SSC)과 *Struc(σ)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러한 설명 방법은 이전처럼 잠재음과 부동자질을 표상적으로 서로 구분 지을 필요성을 제거한다. 만일 표상적으로 이들을 구분한다면, 그 차이가 복잡해져서 오히려 문법의 단순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Struc(σ)은 Max(잠재음)보다 높은 등급을 가지므로, 기존의 음절 내에 끼어들어 갈 수 있는 적절한 여지가 없는 경우 그 잠재음(자질)은 출현하지 못한다. *Struc(σ)와 NoCoda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등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결국 잠재음(자질)의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이 기저 상에서 뿌리마디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잠재음(자질)의 형식과 위치는 제약으로 이루어진 문법으로부터 완전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즉 잠재음(자질)의 이동성과 분절음성은 SSC»*Struc(σ), NoCoda»Max(잠재음)»Align과 같은 제약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예측됨을 알 수 있다.⁴⁾ 단독형일 경우 최적형으로 ‘나모’(10.ㄴ)가 선택되는 과정은 제약도표(10)으로부터 알 수 있다.

(10) 단독형 /나ㅁ, [Dorsal]/일 경우

/namʌ, [Dor]/ (나ㅁㄷ)	SSC	*Struc (σ)	No Coda	Max (잠재음)	Align
ㄱ. na.mʌk (나ㅁ>나목)		**	*!		
ㄴ. na.mʌ (나ㅁ>나모)		**		*	

‘남기’(木), ‘굵기’(孔) 등에 나타나는 ‘ㄱ’를 떠돌이 음소(floating segment) 또는 부동음으로 취급한 견해로는 허용(1997)과 박종희(1997)를 들 수 있다. 허용(1997)에서는 이 글에서 가정한 잠재음의 개념과 달리, 운율구조에 배치되지 않은 음소를 떠돌이 음소로 보고 지배음운론의 관점에서 이의 행동을 논의하였다. 먼저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허용(1997)에서 ‘나목’계의 체원들은 기본적으로 /CVCØk/의 음절구조를 가지며 이때의 Ø는 영역 내 빈 핵으로, 그리고 k는 떠돌이 음소로 설정된다.

4) *Struc(σ) 대신에 No root node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제약 등급순을 *연음»앞열≥뒤열»No root node»Max(잠재음)으로 설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연음 제약은 어떤 분절음이 탈락할 경우 그 흔적에 의하여 분절로 표기되어야 하는 제약을 말하며, 앞열≥뒤열은 음절접촉 제약으로서 앞 음절 종성의 열림도는 뒤 음절 초성의 열림도보다 적어서는 안 되는 제약이다. 이 제약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등급의 No root node 제약이 위반되어 잠재음이 표면에 실현되면 ‘남기’형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나무’계 체언에 모음형 조사가 후행하면 이들은 비분리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음운론적 단위가 되고, 후행하는 모음 핵 /i/ 등에 의하여 Ø이 적정 지배되어 음운론적으로 해석되지 못하면 떠돌이 음소 k가 후행 모음 핵의 초성에서 실현되어 ‘남기, 남근, 남굴, 남기…’가 된다. 반면에 ‘나무’계 체언에 자음형 조사가 후행하면 이들은 분리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음운론적 단위가 되지 못하고, 떠돌이 음소 /k/는 음운론적으로 해석되지 못하여 ‘나모’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11) ‘나무’(木)의 기저형 표시(허용 1997: 81)

O	N ₂	O	N ₁	
X	X	X	X	
n	a	m		k (나 모)
n	jə	n		k (너 느)
k	u	m		k (구 무)

(11)의 음절구조를 보면, N₁은 빈 핵이고 그 다음에 떠돌이 음소인 /k/가 있다. /k/는 해당하는 음절의 구성성분이 없어 발음이 되지 않는다. 빈 핵 N₁은 그 다음에 자음이 오므로 영역 말의 빈 핵이 아니라 영역 내의 빈 핵이 된다. 따라서 이 빈 핵의 승인은 적정지배에 의해 결정된다. 즉, N₁은 그 다음의 음절핵으로부터 적정지배를 받으면 음성적 해석을 받지 않고, 적정지배를 받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아 음성적 해석을 받게 된다. 위 N₁은 뒤이어 오는 음절핵이 없으므로, 적정지배를 받지 못한다. 적정지배를 받지 못하는 이 빈 핵은 승인받지 못해 발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N₁은 예외 없이 발음되어 [(C)VCVØ]로 실현된다.

두 형태소가 분리적으로 결합하면 아래와 같이 선행 형태소 /kumØk/는 후행 형태소 /to/와는 별개의 음운영역을 형성한다. 즉, [[kumØk]to]의 기저형

을 갖는다. 편의상 안쪽 영역을 []_{D1}, 바깥쪽 영역을 []_{D2}라고 하면, 그 음절구조는 아래와 같다.

(12) [[구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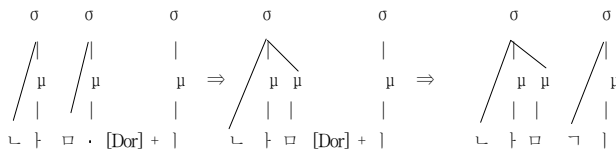
O	N ₂	O	N ₁		O	N
[[X	X	X	X]]
k	u	m	k		t	o

(12)와 같은 구조에서 음운현상은 []_{D1}에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_{D2}에 적용된다. []_{D1}의 구조는 어근 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조사가 붙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문제는 승인되지 않은 빈 핵에 나타나는 모음의 성격인데, 우리말의 경우 적정지배되지 않은 빈 핵은 ‘-’로 발음된다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으면 N₁의 자리는 ‘-’모음으로 실현될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너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음운론적 설명은 김양진(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절 내의 빈핵 Ø의 조건이 얼마나 명시적으로, 또 얼마나 체계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생각이 없다’나 ‘말도 못한다’에서의 ‘체언+격조사형’인 ‘생각이[sengagi]’, ‘말도[maldo]’에서의 유성음화와 ‘발등[pald’iŋ]’과 같은 합성어에서의 경음화의 차이를 볼 때, 동일한 자격을 갖는 격조사가 모음형으로 시작하느냐 자음형으로 시작하느냐가 음운 단위의 분리적-비분리적 단위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가 하는 점도 분명하지 않다. 이외에도 허용(1997)에서는 떠돌이 음소가 계류(anchoring)할 수 있는 적합한 목표 장소(targets)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존의 분절음에 계류하여 2차적 조음으로 실현되지 않는 떠돌이 음소가 자립적인 분절음(autarchic segments)으로 실현되는 경우, 그 실현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떠돌이 음소가 선행하는 핵음의 운각(rhyme)에 연결되어 종성으로

실현되면(예. *나목)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빈 핵이 적정지배를 받으면 음성 실현이 되지 않는 음성적 동기성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허용(1997)에서 말하는 떠돌이 음소(floating segment)란 소리값만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운율적 요소 즉, 구성성분(constituent)과 골격(skeletal point)이 없는 분절음을 말한다. ‘나모’의 기저 음절구조 안에 떠돌이 음소 /ㄱ/가 존재한다면, 이 음절구조의 빈 핵이 영역 내 빈 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개념에 따르면 떠돌이 음소란 그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때의 /ㄱ/는 반드시 음절구조의 맨 오른쪽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빈 핵 바로 앞에, 그리고 /ㅁ/ 바로 앞에 떠돌이음소 /ㄱ/가 자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낙모). 그리하여 영역 말의 빈 핵을 가진 것으로 보게 되면, 단독형으로서 ‘나모’가 아니라 ‘남’을 실현하게 되므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단독형 및 자음 조사 앞에서 떠돌이 음소가 반드시 소멸되어, 표면에 자신의 분절음 [ㄱ]로 실현되어서는 안 될 필연성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중성의 [ㄱ]으로 실현되는 것이 우리말의 자연스런 일반적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음 조사 ‘ㅣ’ 앞에서 부동음(자질)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자.

(13) /나ㅁ, [Dorsal] + ㅣ/



/·/와 /ㅣ/ 사이에 잠재음(자질)이 존재할지라도 이 두 모음은 위 도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분절음(뿌리마디)와 모라 레벨에서 인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음운과정에 의해 필수적으로 탈락하게 된다. 이처럼 제2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체언 어간형(남

기, 굶기 등)은 다 예외 없이 방점이 ‘무점·무점’이다(이기문 1962). 즉 저조의 연속 /·`/이다. ‘무점’ 즉 저조인 /·/모음만이 모음 조사 앞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즈스’(核) 류가 곡용할 때는 제2음절의 /·/가 탈락하지 않는다. 배제격 ‘즈스늬’(원각 상1지2:180), 주격 ‘늬즈스’(몽법 25), 대격 ‘늬즈스톨’(월석 21: 218) 등. 그 이유는 방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즈스’는 방점이 ‘무점·1점’이다. 음운론적으로 말하면 저조와 고조의 연속 /·`/이다. 이러한 특징적인 /·/의 탈락과 더불어 잠재음(자질)에 뿌리마디가 삽입되면 [Dor]은 뒤 음절의 초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약도표 (14)가 보여준다.

(14)

/namΛ,[Dor]+i/ (나ㅁㄷ+ㅣ)	SSC	*VV	*Dip	*Struc (σ)	No Coda	Max (잠재음)	Align
ㄱ. na.mΛ.ki (나ㅁ기)				***!			*
ㄴ. na.mΛ.i (나ㅁ이)		*!		***		*	
ㄷ. na.mΛ.j (나ㅁㅈ)			*!	**		*	*
ㄹ. nam.i (남이)				**	*	*!	
ㄹ ㅁ. nam.ki (남기)				**	*		*

후보형 ‘나ㅁ이’(14.ㄴ)과 ‘나ㅁㅈ’(14.ㄷ)은 각각 상위 제약 *VV(두 모음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피한다.)와 *Dip(이중모음을 피한다.)를 위배하므로 제외된다. 동일 음절 내부에서 서로 다른 분절음의 연속체 즉, 이중모음은 상대적으로 유표성이 높으므로 *Dip제약이 필요해진다(Casali 1997). 그리고 후보형 ‘나ㅁ기’(14.ㄱ)는 상위 제약을 모두 만족시키지만 *Struc(σ)를 세 번이나

위배하므로 또한 제외된다. 이제 후보형 ‘남이’(14.ㄹ)와 ‘남기’(16.ㄱ)만이 경쟁하게 된다. ‘남이’는 Max(잠재음)을 위배하고, ‘남기’는 Align을 위배한다. 그러나 Align이 하위 제약이므로 이를 위배한 ‘남기’(16.ㄱ)가 최적형으로 선택됨을 알 수 있다.

3. 용언 어간의 ‘ㄱ’ 덧남

김영일(1998)에서는 ‘木’을 의미하는 중세국어 어형을 ‘남ㄱ’로 보고(‘남ㄱ’ 또는 ‘*나목’, ‘*나목이 아니라), 이 ‘남ㄱ’에서 어중자음 ‘ㄱ’가 탈락하고 어말모음이 바뀐 어형이 ‘나모’라고 보았다. ‘남ㄱ~나모’에서와 같이 어중자음 ‘ㄱ’가 탈락하고 어말모음이 변해서 된 어형으로는 또 ‘굵ㄱ~구무, 붉ㄱ~불무, *뚝ㄱ~두무’가 있고 어중자음 ‘ㄱ’만 탈락하고 모음은 변하지 않는 어형으로 ‘년ㄱ~녀느’가 있다고 보았다.

체언과 마찬가지로 용언에서도, 15세기 국어에서 ‘植’을 뜻하는 어형의 어간을 ‘심ㄱ-’로 보고(‘심ㄱ-’ 또는 ‘*시목-’이 아니라), 이 ‘심ㄱ-’의 ‘ㄱ’이 유성자음 ‘ㄹ’ 아래에서 탈락한 형태가 ‘시므-’라고 보았다. ‘심ㄱ-~시므-’와 같이 어중자음 ‘ㄱ’가 탈락하기도 하는 용언어간으로서 또 ‘좁ㄱ-~즈므-, 돕ㄱ-~드므-’ 등을 제시하였다.

(15) ①심ㄱ-~시므-

- ㄱ. 아니 심거 물홀 꺼시라<석보 6:37-38>
- ㄴ. 도훈 根源을 시므고<석보 19:33>

②좁ㄱ-~즈므-

- ㄱ. 寶所에 다다 쇠 좁고미 업거늘<남명, 하:1>
- ㄴ. 門을 다 즈므고<석보 6:2>

③ ㄱ-~ㄷㅁ-

- ㄱ. 므레 ㄱ 분거든<구간 6:10>
- ㄴ. 소곰 므레 모뎨 두셔 번 ㄷㅁ고<구간 6:69>

④ ㄴ-~ㄴㅁ-

- ㄱ. 노폰 피훅 ㄴ 보내노라<두해-초 7:35>
- ㄴ. 八敬法을 ㄴㅁ디 아니 훅야<월석 10:20>

‘심ㄱ-~시ㅁ-, 좁ㄱ-~조ㅁ-, 둑ㄱ-~ㄷㅁ-’ 등의 교체 현상에 대해, 종래에는 현상의 단순한 기술적 차원에서 활용시에 ‘ㄱ’이 덧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고, 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개음절형(ㄷㅁ-, 조ㅁ-, 시ㅁ-)이 나타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폐음절형(둑ㄱ-, 좁ㄱ-, 심ㄱ-)이 나타나는 것에 착안하여 ‘*시ㅁ-, *조ㅁ-’ 등을 가상적 기본형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ㄱ’이 덧나는 것으로 본 견해는, ‘ㄱ’이 덧날 필연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그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허 웅(1975: 325, 462)에서는 가상적 기본형 ‘*시ㅁ-’을 설정하여 여기에 자음 어미가 오면 어간의 ‘ㄱ’이 줄어들어서 ‘시ㅁ-’가 되고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어중의 모음 ‘-’이 줄어들어 ‘심ㄱ-’이 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 ‘*시ㅁ-’에 자음 어미가 올 경우 어간의 ‘ㄱ’이 줄어들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서 또한 그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15세기 국어에서 어간 말음 ‘ㄱ’을 가진 ‘떡-’에 자음 어미가 결합되면 ‘떡-고, 떡-디’ 등으로 되어 ‘ㄱ’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ㅁ-’에 모음 어미가 오면, ‘자음+모음’의 매우 자연스러운 음소 연결 형태가 되는데 어째서 이런 자연스러운 음소 연결이 거부되고 ‘*시ㅁ-’의 어중 모음 ‘-’이 탈락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영일(1998)은 위의 (15.①ㄱ)에 보이는 ‘심ㄱ’의 어간을 종래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해 온 ‘심ㄱ-’을 부정하고 ‘심ㄱ

-’로 보았다. 그리고 이 ‘심그-’의 어중자음 ‘ㄱ’탈락형이 ‘시므-’라고 추정했다. 15세기 국어에서 이른바 불침불탁음과 모음 사이의 자음이 탈락하는 예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위의 예도 바로 그러한 예 중의 일부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심그-’에 모음이 연결되면 어간의 끝 모음 ‘으’가 탈락하는데, 그 탈락형이 ‘심거’라고 본다. 15세기 국어에서 ‘심그-~시므-’와 같이 교체되는 것으로는 또 ‘좁ㄱ-~즈ㅁ-’와 ‘뚝ㄱ-~드ㅁ-’가 있다.

또한 종래의 논의에서는 (15.②ㄱ)에 나타나는 어형의 어간을 ‘좁ㄱ-’으로 보고 (15.②ㄴ)의 어형 어간을 ‘즈ㅁ-’로 보아 ‘좁ㄱ-’형은 ‘ㄱ’이 덧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자음 음소 중에서 왜 유독 ‘ㄱ’이 덧나는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리하여 김영일(1998)에서 어간은 ‘좁ㄱ-’가 아니라 ‘좁ㄱ-’이고 이것의 자음 탈락형이 ‘즈ㅁ-’라고 보았다. 따라서 어간은 ‘좁ㄱ-’이 아니라 ‘좁ㄱ-’이며, 이 ‘좁ㄱ-’가 모음어미 앞에서 어간 끝모음 ‘으’를 탈락시킨 형태가 ‘좁ㄱ-’라고 본다. ‘좁ㄱ-~즈ㅁ-’와 같은 유형의 어간 ‘뚝ㄱ-~드ㅁ-’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종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도 새로운 의심스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심그고’와 ‘심어’형이 출현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어간형 ‘심그-’에 ‘어’가 오면 ‘심거’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심그-’ 뒤에 자음 어미 ‘고’가 오면 ‘심그고’가 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심그고’ 대신 ‘시므고’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심거’형도 ‘ㄱ’ 뒤에서 ‘ㄱ’이 탈락한 ‘심어’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심그-어>심거>심어, 시므-어>심어). 이러한 현상은 ‘ㄱ’이 탈락한 어간형 ‘시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단 이때는 위와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어간형 ‘시므-’에 ‘어’가 오면 ‘심어’가 될 것이다. 또한 ‘시므-’ 뒤에 자음 어미 ‘고’가 오면 ‘시므고’가 된다. 그러함에도 여기서서는 정상적인 ‘심어’ 대신 ‘심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고 있다. 이것은 교체의 짝을 어긋나게 잘못 설정한 데서 파생된 문제라 생각한다. 모음 어미가 뒤에 올 때는 어간형을 ‘심그-’로 보고, 자음 어미가 뒤에 올 때는 어

간형을 ‘시므-’로 보았기 때문이다. ‘ㄱ’유지형 어간의 패러다임과 ‘ㄱ’탈락형 어간의 패러다임을 평행적으로 대등하게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심그-’와 ‘시므-’와 같은 유형의 예들을 단순히 쌍형어로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김양진(2000:295)에서는 쌍형이라는 개념을 두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하나는 공시적 개념에서의 쌍형이며 다른 하나는 통시적 개념에서의 쌍형이다. 공시적 개념에서의 쌍형은 어떤 단어가 역사적 변화 과정에 있을 때, 변화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두 어형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땡굴다’가 ‘땡들다’로 교체되는 시기에 이들은 잠시 동안 공존하고 있다가 ‘땡들다’형의 우세로 ‘땡굴다’형이 소멸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 동안 쌍형은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통시적 개념에서의 쌍형은 동일한 기원을 갖는 단어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발전하다가 우연히 한 지역에서 전이지대를 형성하게 될 때 발생하게 된다. 즉 ‘드틀’과 ‘들글’같이 하나의 기원형 ‘들글’(아마도 */tityil/)에서 각기 ‘드틀(tithil)’, ‘들글(titgil)’로 발전하게 된 두 어형이 차용이나 간접 작용에 의해 한 언어 내에 공존하게 될 때 쌍형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나모~남기’, ‘시므-~심그-’ 등은 이러한 쌍형어의 개념 속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이들은 시기적으로 다른 시대에 형성된 것들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달해 온 것들도 아니다. 이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며 두 개의 이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체언 및 용언의 특수한 교체형들은 상보적 분포의 개념 하에 하나의 형태소로 묶을 수 있는 두 개의 이형태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쌍형 어간설과는 구별되는 관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들은 체언 어기 및 용언 어간의 이형태적 교체형으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들의 처리는 공시적인 기술에 의해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쌍형어와는 다르다고 본다(김양진 2000). 이외에도 ‘심그-’에서 ‘ㄱ’ 뒤의 ‘ㄱ’이 탈락하여 ‘시므-’가 되었다고 할 때, ‘감기-’처럼 ‘ㄱ’ 뒤에서 ‘ㄱ’이 탈락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어간 내부에 잠재음(자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해

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15)①~④에 제시된 용언의 예들은 체언과 마찬가지로 잠재음(자질)을 내포하고 있는 특이한 어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약의 위계로 이루어진 문법이 이들 특수 어간과 작용하여 다양한 행동을 내보인 것이 (15)의 표기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특수 어간들 가운데 한 예 즉, ‘심ㄱ-’와 ‘시므-’의 교체 현상을 제약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

/simi,[Dor]+ko/ (시므ㄷ+고)	SSC	*VV	*Dip	*Struc (σ)	No Coda	Max (잠재음)	Anchor
ㄱ. si.mik.ko (시묵고)				***	*!		
ㄴ. sik.mi.ko (식므고)				***	*!		**
ㄷ. si.mi.ko (시므고)				***		*	

후보형(16.ㄱ), (16.ㄴ), (16.ㄷ)는 모두 *Struc(σ)를 세 번씩 위배하지만 (16.ㄱ)과 (16.ㄴ)은 NoCoda를 위배하므로 경쟁에서 제외된다. (16.ㄷ)의 ‘시므고’형은 Max(잠재음)을 위배하지만 이 제약이 낮은 등급이므로 이것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자음 어미가 뒤에 올 때, ‘시묵고’형이 최적형이 되지 못하고 ‘시므고’형이 최적형이 되는 이유는 중세국어에서 NoCoda가 Max(잠재음)보다 위계가 높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음 어미가 뒤에 올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17)

/simi,[Dor]+ə/ (시므+어)	SSC	*VV	*Dip	*Struc (σ)	No Coda	Max (잠재음)	Anchor
ㄱ. si.mi.kə (시므어)				***!	*		
ㄴ. si.mi.kə (시므거)				***!			*
ㄷ. sik.mi.ə (식므어)		*!		***	*		**
ㄹ. sim.kə (심거)				**	*		*
ㅁ. sim.ə (심어)				**	*	*!	

후보형 (17.ㄷ)은 상위 등급의 *VV를 위배하므로 제일 먼저 제외된다. (17.ㄱ)와 (17.ㄴ)는 *Struc(σ)를 세 번씩 위배하므로 그 다음으로 제외된다. 결국 (17.ㄹ)과 (17.ㅁ)이 경쟁하게 되는데, (17.ㄹ)와 (17.ㅁ) 모두 NoCoda를 위배하므로 Max(잠재음)을 위배하지 않은 (17.ㄹ)가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제약도표(17)도 앞에서 논의한 경우와 동일한 제약들과 동일한 위계에 의해 올바른 최적형을 선택해 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세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에서 어중의 유성자음 ‘ㅁ, ㄴ’가 ‘ㄱ’와 연결될 때, 뒤의 ‘ㄱ’가 남아 있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하여 두 가지 어형을 나타내는 예들 가운데 다음(18)의 유형과 같은 예만을 쌍형어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⁵⁾

(18) ①범글-~버물-

ㄱ. 物의 범그로미 두외디 아니혹실씨<법화 6:133>

ㄴ. 들글 ㅁ 시름 버므로물 벗고져 ㅎ는 전치라<법화 6:145>

www.kci.go.kr

5) 이런 쌍형어의 예들은 김영일(2001)에서 정리된 바 있다.

②엮글-~여믈-

- ㄱ. 여믈 열리도 엮글에 헸야<월석 13:47>
- ㄴ. 여믈 드외리로 여믈에 헸야<법화 3:12>

③점글-~저믈-

- ㄱ. 거즌 뜰헸 헸 점글오저 헸놋다<두해-초 3:27>
- ㄴ. 헸 저믈어늘 긴 대를 지여 셋도다<두해-초 8:66>

④일점그리~일저믈리

- ㄱ. 일점그리 님금 시름호믈 드로니<두해-초 23:33>
- ㄴ. 恭敬헸야 일저믈리 헸야<내훈-초 1:83-84>

⑤뺨긔-~뺨의-

- ㄱ. 野老 | 뺨긔며<남명, 하:74>
- ㄴ. 西子의 즈시 업스면 뺨의을 본바도매<남명, 하:74>

(18)과 (15)의 공통점은 각 교체항에 잠재음(자질) [Dor]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전자는 ‘ㄱ~∅’의 교체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데 반해서 후자는 동일 환경에서 교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상보적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쌍형어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쌍형어 ‘점글-~저믈-’에 보이는 ‘ㄱ’를 잠재음(자질)의 음성적 실현으로 보면, ‘ㄱ’ 뒤에서 ‘ㄱ’를 탈락시키는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 유형이 쌍형어를 이루게 된 원인은 다양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의 가능성만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한다. 1차 어간형 ‘저믈, [Dor]-’에 접사 ‘(으)르’가 붙어 2차 어간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방안이다.⁶⁾ 접사 ‘르’가 첨가되면 ‘저믈-’형이 출현하고, ‘을’이 첨가되면 ‘점글-’형이 출현하게 된다. (19)가 이를 보여준다.

6) 2차 어간형을 이루는 접사 ‘(으)르’의 ‘으’도 잠재음으로 볼 수 있다. 잠재음 [Dor] 뒤에 다시 잠재음 ‘으’가 오게 되면, ‘으’의 음성 실현은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먼저 수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19) /저므, [Dor]-/에 접사 ‘(으)르’가 오는 경우

/저므㉠+르-/	*Struc(σ)	Max (seg)	Max (잠재음)	No Coda	Dep (seg)	Anchor
접글-	**	*!		**	*	*
☞ 저물-	**		*	*		*
저므글-	***!			*	*	*

/저므㉠+을-/	*Struc(σ)	Max (seg)	Max (잠재음)	No Coda	Dep (seg)	Anchor
☞ 접글-	**	*		**	*	*
저물-	**	*	*!	*		*
저므글-	***!			*	*	*

다른 또 하나의 방안은 2차어간 형성 접미사 ‘(으)르’를 설정하지 않고, 소문 법내의 제약 등급의 변이로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위계가 NoCoda≫Max(잠재음)이어서, Max(잠재음)의 등급이 낮으면 ‘저물-’형이 되고 이와 대조적으로 Max(잠재음)≫NoCoda이어서 Max(잠재음)의 등급이 높으면 ‘접글-’형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 제약의 등급이 유동적이어서 변이형을 발생시킬 때, 이들 변이형이 쌍형어로 발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 두 제약의 등급이 다른 두 방안이 접촉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고찰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특수어간 교체 또는 ‘ㄱ’덧남 어형 등으로 이해되어져 왔던 현상들은, 뿌리 마디가 없는 잠재음(자질) [Dor]과 일반적인 제약들의 등급 사이에서 발생한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필요한 분절음 구조 제약(SSC)과 NoCoda, 그리고 Max와 Anchor 제약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체언의 ‘나모~남기’, 그리고 용언의 ‘시므~~심기’가 공식적으로 교체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들 어휘에 잠재음(자질) [Dor]을 인정하면, 이들 교체하는 두 어형은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자동적으로 발생하므로 역사적 발달 과정에 나타난 쌍형어간 및 특수한 교체 현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잠재음(자질)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절음과 작용하여 이차적인 조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하나의 분절음으로 출현할 수도 있다. 또한 운율구조에 배정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실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잠재음(자질) [Dor]의 기저형은 부동의 조음위치 자질 [Dor]로 표시할 수 있다. 이 조음위치 자질이 일으키는 이차 조음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차조음은 분절음구조 제약(SSC)에 의해 발생이 저지된다. 그리하여 잠재음(자질) [Dor]은 뿌리마디가 삽입되는 경우에 한해서 항상 일차적인 조음으로 출현하게 된다. Anchor 제약은 뿌리마디가 삽입될 경우, 어근 또는 어간말 위치에 ‘기’가 출현함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잠재음(자질)이 기저상에서 뿌리마디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뿌리마디의 존재 여부는 제약의 위계로 이루어진 문법으로부터 완전히 예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Struc(o)가 Max(잠재음)을 지배하므로, 기존의 음절구조 내에 잠재음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에는 출현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잠재음(latent segment)과 부동자질(floating features)의 차이를 규정하는데 이용되었던 두 가지 특징 즉, 잠재음이 단어의 가장자리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인지 어떤지 하는 점(고정성)과 자신의 분절음으로 출현이 가능한지 어떤지 하는 점(자립성)은 서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완전히 독자적인 사실임을 고려할 때, 잠재음과 부동자질을 구별하는 표상적 차이는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충구(2000), 「함북방언의 비자동적 교체 어간과 그 단일화 방향」,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 김무립(1995), 「중세국어 쌍형어간의 음운사적 고찰」, 『어문논집』 34, 고려대.
- 김성규(1995), 「사르다'류의 파생어」,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김성규(1996), 「'드틀'과 '들글'의 공존」,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동아출판사.
- 김성규(1998), 「중세국어의 쌍형어에 대한 연구」, 『전농어문연구』 제10집, 서울 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양진(2000), 「특수어간 교체설 재고」,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 김영일(1998), 「중세국어 'ㄱ'덧남 어형의 재고찰」, 『어문학』 64. 한국어문학회.
- 김영일(2001), 「15세기 국어 쌍형어 고찰」, 『한글』 251, 한글학회.
- 남광우(1962/1957), 「명사 공용에 있어서의 'ㄱ'의 고찰」, 『국어학 논문집』. 중앙대학교 출판국.
- 민현식(1996), 「중세국어의 교체 현상 기술에 대한 재검토」, 『이기문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동아출판사.
- 박종희(1997), 「중세국어 특수어간 교체의 음운론적 해석」, 『국어국문학』 119, 국어국문학회.
- 박종희. 2003. 「중세국어 공동격 조사 '-와/과'의 교체」, 『한글』 261, 한글학회.
- 이기문(1962), 「중세국어의 특수어간 교체에 대하여」,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 최명옥(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성곡학술문화재단.
- 한재영(1997), 「어간교체형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허 용(1997), 「특수 어간 교체어 재고 : 단일형일 가능성에 대한 탐구」, 『국어학』 30, 국어학회.
- Casali, Roderic F. 1997. Vowel elision in hiatus contexts: Which vowel goes?, *Language* 73. 3. 493-533.
- Clements, G. N. 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Yearbook* 2. 223-252.
- Jakobson, R. 1962. Selected writings, I: Phonological studies. The Hague: Mouton.
- McCarthy, John.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ill N. Beckman, Laura Walsh Dickney and Suzanne Urbanczyk(eds.), *Papers in optimality theory*. UMass, Amherst: GLSA.
- Padgett, J. 1991. Stricture in feature geometry. Ph.D. dissertation, UMass Amherst.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anuscript,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 Selkirk, E. O. 1981. Epenthesis and degenerate syllables in Cairene Arabic. In Borer and Aoun(eds.), *Theoretical issues in the grammar of Semitic languages*.
- Wright, R. 2001. Perceptual cues in contrast maintenance. In Elizabeth Hume & Keith Johnson(eds.), *The role speech perception in phonology*. Academic Press. 251-277.
- Zoll, Cheryl. 1993. Directionless syllabification in Yawelmani. In ROW-1,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 Zoll, Cheryl. 1994. Anchors away: A unified treatment of latent segments and floating features. manuscript, UC Berkeley.
- Zoll, Cheryl. 1996. Parsing below the segment in a constraint-based framewor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Zoll, Cheryl. 2001. Constraints and representation in subsegmental phonology,

in the *Segmental Phonology in Optimality Theory*, Linda Lombardi(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www.kci.go.kr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중세국어에서 ‘ㄱ’ 덧남을 가진 어간은 기저형으로 /나ㅎ, [Dor]/로 나타난다. 이 형태에서 [Dor]는 잠재음(자질)로 간주된다. ‘잠재음’이란 용어는 문법이 결정하는 위치에서 완전분절음으로 실현되는 부동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 분석은 독립적으로 요구되는 분절음 구조제약과 개음절(NoCoda)제약, 제약 위계에서의 MAX(잠재음)과 ANCHOR 사이의 서로 다른 가능한 관계들, 표면형에서의 음절 수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의 *STRUC(σ)의 역할로부터 다양한 유형을 이끌어 낸다. *STRUC(σ)는 기존의 음절구조에 끼어드는 자음에 의해서는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STRUC(σ)는 한 단어의 음절의 총수에만 관여하고 음절의 내부 복합구조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음이 부동 CPlace 자질들로서 표시되는 설명아래서 분절음 구조의 역할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그 자질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의 2차 조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절음 구조는 이 자질들이 삽입된 뿌리마디에서 일차적인 조음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것을 막아준다. ANCHOR는, 삽입되는 뿌리마디가 올 공간이 있는 경우 그것이 어간 말에 삽입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오는 잠재음 자질을 유지할 기저의 뿌리마디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준다. MAX(잠재음) 위의 *STRUC(σ)의 서열은 기존의 음절구조 내에 잠재음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에는 그 자질이 발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표 (8), (10), (16), (18), (19)에서 설명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의 어간 교체의 특별한 움직임은 (뿌리 없는) 잠재음 자

질과 관련된 일반 제약 위계의 상호작용을 따른다.

주제어: 특수어간 교체, 잠재음 [Dor], 부동산자질, 쌍형어, 제약 등급

www.kci.go.kr

【Abstract】

Remarks on the so-called 'k' additive word forms in Middle Korean

Kwon, Pyung-Ro · Park, Jong-Hee

In this paper, the stems written with additive 'k' is underlyingly represented as /nam^Λ, [Dor]/ in Middle Korean. [Dor] in this form is supposed to latent segment(feature). The term 'latent segment' should be considered to mean floating features which materialize as full segments in contexts determined by the grammar.

The analysis proposed here derives the variety of patterns from the independently needed SEGMENT STRUCTURE and NOCODA constraint, the different possible relations between MAX(feature) and ANCHOR in the constraints hierarchy, and the role of *STRUC(σ) in keeping down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output. *Struc(σ) will never be violated by a consonant slipping into an existing syllable since it only cares about the total number of syllables in a word, and not about the internal complexity of those syllables.

Under an account where the latent consonants are represented as floating CPlace features, the role of SEGMENT STRUCTURE is clear, since there is no secondary articulation in Middle Korean which corresponds to these features. SEGMENT STRUCTURE keeps them from turning up anywhere except as the primary articulation on an inserted root node. ANCHOR insures that when there is room for the epenthetic root node it will be inserted stem finally, so we need not depend on

underlying root nodes to keep latent features in place. the ranking of *STRUC(σ) above MAX(feature) entails that when there is no available spot in an existing syllable, the feature will fail to appear. This is illustrated by the tableaux in (8), (10), (16), (18), (19).

Thus the special behavior of the stem alternants in Middle Korean follows from the interaction of the hierarchy of general constraints with the latent (rootless) feature.

Key words : Special stem replacement, latent segment[Dor], floating features, Doublet, Constraints Rating